

고대부터 현대까지! 대구의 탄생과 발전 이야기



【1장을 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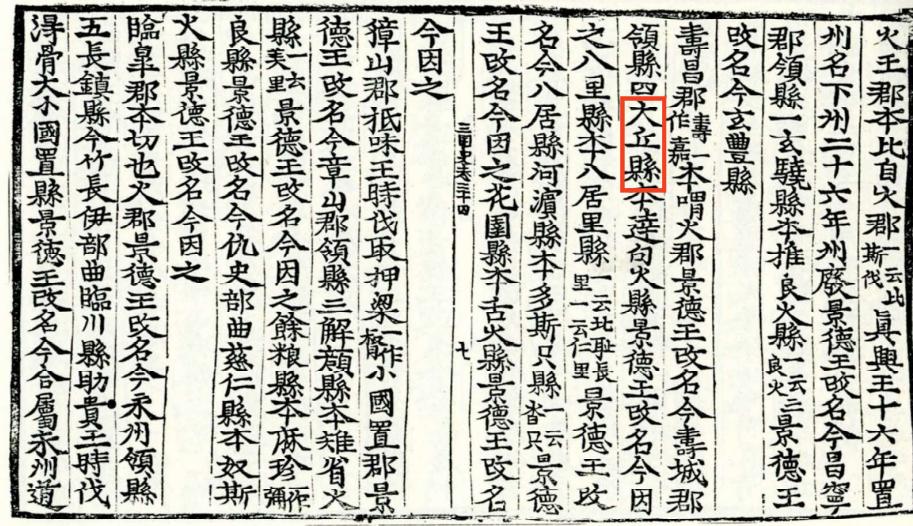
대구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또 대구는 어떻게 하여 지금과 같은 대도시로 발전했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풀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인 대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혀 보자.

1. 대구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2. 조선시대에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도시가 된 까닭은?
3. 대구는 어떻게 대한민국 3대 도시로 성장했을까?
4. 대구의 정다운 이웃, 경상북도의 역사

대구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대구라는 지명이 생긴 유래부터 대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까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대구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흥미진진한 대구 역사여행! 지금부터 출~발!



'대구'라는 지명이 맨 처음 등장하는 역사서인『삼국사기』의 기록

서기 757년,
우리들의 도시 대구 탄생!

대구의 정식 이름은? 대구광역시다. 대구에 사는 우리들은? 대구광역시의 시민이다. 대한민국에는 도시 이름 뒤에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가 붙는 곳이 있다. 특별시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특별자치시는 세종, 광역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여섯 곳이다.

이 6개 광역시는 저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대구가 가장 먼저 생긴 지명이다. 2023년 기준으로 무려 1266년 전, 통일신라시대인 경덕왕 16년(757) 때 생겼으니까.

당시 신라의 영토는 수도인 금성(지금의 경주)과 9주 5소경(9개의 지방, 5개의 큰 도시)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9주에는 여러 고을이 있었는데 각 고을 이름 뒤엔 군 또는 현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오늘날 대구 지역은 9개의 주 중에서 삽량주에 속했다. 삽량주에는 위화군이 있었는데, 위화군에 속한 4개의 현 중에 달구화현이 있었다.

경덕왕은 757년 9주 5소경의 지명을 포함하여 거기에 속한 군현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이때 위화군에 속한 현이었던 달구화현도 이름이 대구현으로 바뀌었다. 당시 대구현의 한자 표기는 ‘大丘’였다.

우리들의 도시 대구의 이름은 이렇게 탄생하였다!



**달구벌, 달벌, 달구화 ...
대구의 옛 이름에 담긴 뜻은?**

대구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 이후 신석기시대를 지나 청동기시대가 되면서 문화가 점점 발전하였다. 그 영향으로 대구 등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지명이 생겼다. 대구라는 지명이 생기기 전 대구의 옛 이름은 달구벌이었다. 달구벌 외에, 달벌, 달불성, 달구화 등으로 불렸다. 고려시대 사람인 김부식이 쓴 역사책 『삼국사기』에는 ‘신라 침해 이사금 15년(261)에 달별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달구벌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삼국시대에 달(達)은 ‘넓은 것’ 또는 ‘높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벌(伐)은 ‘평지·평야·언덕·촌락’을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달구벌은 ‘큰 언덕·넓은 평야·넓은 촌락’을 뜻하는 말이었던 것이다. ‘벌’ 자로 끝나는 신라시대 지명에는 서라벌(경북 경주), 사벌(경북 상주) 등도 있다.

대구(大丘)의 한자 대(大)는 ‘클 대’, 구(丘)는 ‘언덕 구’이다. 경덕왕 시대에 달구벌이 대구로 바뀐 것은 이름이 바뀐 것일 뿐, 그 안에 담긴 뜻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할 수 있다.

경덕왕 시대만 해도 사람들은 대구라는 지명보다 달구벌이나 달구화라는 지명을 더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한자 사용이 늘어나면서 대구를 달구벌보다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대구 한자 지명이
왜 지금은
대豆가 아니라 大邱일까?**

현재 대구의 한자 이름은 大邱이다. 邱(구) 역시 언덕을 뜻하는 한자이다. 大丘에서 大邱로 한자 표기가 바뀐 것은 조선시대 21대 영조(재위 1724~1776) 때이다. 공경하고 삼가는 의미로 왕이나 성인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게 당시의 상식이었다. 조선시대에 유학은 최고의 학문이었고, 선비들은 유학을 창시한 공자를 우러러보았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대구의 한 유학자가 대구(大丘)의 구(丘)가 공자(孔子)의 이름인 공구(孔丘)의 구(丘) 자와 같으니 이를 바꾸자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일이 있은 후 시간이 흐르면서 大邱라는 한자 표기가 大丘를 대신하게 되었다.



수도를 대구로 옮기는 것이 어떠한가?



왜 신문왕은

수도를 옮기려 했을까?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첫째, 신라 수도 금성(경주)이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친 곳에 있어 삼국통일로 크게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는 데 불편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구는 동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 있어, 통일신라를 다스리는 데 지리적으로 유리했다.

둘째, 대대로 금성에서 살아온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옮기지 못했을까? 귀족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이전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문왕의 수도 이전 계획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신문왕 시대에 대구는 수도 이전 후보지가 될 만큼 군사, 교통에서 중요한 도시였다는 점이다.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제도인 9주 5소경은 685년 제31대 신문왕 때 만든 것이었다. 신문왕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의 아들이다.

689년 신문왕이 신하들에 게 말하였다.

“신라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옮기고 싶소.”

“옮기신다면 어디로?”

“달구벌(대구)이 좋을 것 같소.”

신문왕이 대구로 수도를 옮길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은 『삼국사기』에 적혀 있다.

삼국시대에 수도 이전은 몇 번 있었다. 고구려는 수도를 졸본성 → 국내성 → 평양으로 옮겼다. 백제는 한성(서울) → 웅진(충청남도 공주) → 사비(충청남도 부여)로 옮겼다. 신하들의 반대로 신문왕의 대구 천도(수도 이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대구가 신라의 새 수도가 되었다면? 신라의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또 대구는 통일신라시대의 많은 문화재를 가진 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왕건이 견훤의 군사와 격돌해 크게 패한 공산 전투가 벌어진 현장인 파군재삼거리

최후의 승자는?
바로 나! 왕건!

야구에서 가장 짜릿한 승부는 9회 말 투아웃 후의 역전승이다. 시합 때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한다. 역사에서도 역전 승부는 많았다. 왕건과 견훤의 대결이 그랬다.

927년 대구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때는 신라, 고려, 후백제가 있었던 후삼국시대였다. 고려의 왕건은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의 수도 경주를 침공하자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고려, 후백제 군대가 격돌한 곳은 오늘날의 대구 팔공산 지역이었다. 두 나라 최고 지도자가 지휘하는 대군이 정면 격돌했으니, 이 전투의 승패가 얼마나 중요했겠는가.

전투는 후백제의 승리로 끝났다. 왕건은 부하 장수인 신승겸, 김락 등이 결사적으로 후백제 군대에 맞서 싸우며 보호한 덕분에 살아서 고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공산 전투 후 한동안 후백제는 기세등등하였고, 고려는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왕건이었다. 935년 신라를 병합하는 데 성공한 왕건은 936년 견훤의 아들 신검이 지휘하던 후백제 군대를 일선군(오늘날 경북 구미 지역)에서 무찌르고 한반도를 통일하였다.

왕건을 대신해 죽은 신승겸 장군의 유적지



왕건의 전설이 전해 오는
'반야월'과 '안심'



대구지하철 1호선 역 중에는 반야월역과 안심역이 있다. 한자로 쓰면 반야월은 半夜月, 안심은 安心이다. 이 지명에는 왕건의 전설이 전해온다. 반야월은 왕건이 견훤 군대에 쫓기다 밤하늘을 보니 반달이 떠 있어서 반야월이 되었다고 한다. 안심은 왕건이 견훤의 추적을 따돌린 후 마음을 놓았다(안심하였다) 하여 유래한 지명이다. 현재 팔공산에는 왕건의 전설을 배경으로 조성된 '왕건길', 그리고 왕건을 구한 장수인 신승겸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2

조선시대에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도시가 된 까닭은?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조선시대 대구에 설치된 경상감영에 대해 알아보자.

또 경상감영 설치 후에 있었던 대구읍성 건설 등 대구의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자.

대구에 경상감영을
설치하노라!

1392년 고려에 이어 새로운 나라 조선이 들어섰다. 삼국시대부터 군사와 교통의 요지였던 대구는 조선시대 들어 조금씩 그 규모가 커졌다. 도시는 더 넓어지고 인구도 더 늘어났다.

세종대왕이 조선 제4대 왕으로 즉위했던 1419년 대구현은 대구군으로 승격이 되었다. 이어 1466년 대구군은 대구도호부로 승격하였다. 도호부는 인구가 많고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에 설치한 행정기구였다. 조선 초기 도호부가 설치된 도시는 약 40곳이었다.

이 무렵 오늘날 경상북도 지역에는 대구보다 큰 도시가 몇 있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교통이 발달한 상주 같은 도시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이 전쟁은 1598년까지 이어졌다. 전쟁 동안 대구는 군사적 요충지로 주목받게 되었다. 전쟁 초기 대구 지역은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진격하는 왜군의 이동, 보급 통로가 되었다. 또 조선이 반격을 시작했을 때, 왜군을 물리치기 위한 조선·명나라 연합군의 군사작전이 대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598년 전쟁이 끝난 후 조선 정부는 군사, 행정 제도를 개편하였다. 그 조치 중 하나로, 1601년에 경상감영을 대구로 이전하였다.



감영은 어떤 곳이었나?

조선시대에 지방은 8개의 도로 나눠져 있었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였다. 각 도의 행정과 군사 분야를 책임진 사람은 왕이 임명한 관찰사였다. 관찰사를 감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감영은 관찰사가 근무하는 곳이었다. 감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관찰사가 근무하는 곳이었다. 이 건물을 선화당이라고 했다.

경상도 관찰사의 집무실로 쓰인 선화당. 20세기 초의 모습이다.





**대구를 둘러쌌던 성이여!
상상만 하여도 웅장하구나!**

1601년 경상감영이 들어선 곳은 오늘날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 있는 경상감영공원 자리였다. 관찰사 부임 후 대구는 경상도의 정치, 행정, 군사 분야 중심도시가 되었다.

경상감영이 설치되면서 대구 인근의 경산현·하양현·화원현 등이 대구도호부에 편입이 되었다. 이로써 대구 면적은 더 넓어졌다. 인구도 더 늘어났다.

감영 설치 후 대구에선 상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지리적으로 대구는 낙동강 중류와 금호강 합류 지점에 위치해서 경상도 물산들이 집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감영 설치 후 대구에는 큰 시장이 생겼다. 1658년 문을 연 약령시(약재를 거래하는 시장)였다. 대구 약령시는 조선 8도에서 가장 큰 약령시로 성장하였다.

1736년 대구는 더욱 근사한 도시가 되었다.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민옹수의 지휘로 감영을 중심으로 하여 대구 도심을 둘러싼 대구읍성을 건설한 것이다. 읍성은 고을을 지키기 위해 쌓은 성을 가리킨다. 읍(邑)이라는 한자 자체도 성으로 둘러싸인 고을을 나타낸 것이다. 대구읍성 규모는 둘레 약 2,650m, 성곽의 폭 약 8.7m, 높이는 약 3.5m였다. 상상만 하여도 웅장하지 않은가!

대구읍성이 세워지고 60년 뒤 오늘날 경기도 수원에는 수원화성이 건설되었다. 수원화성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구읍성이 잘 보존되었다면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손색이 없었을 것이다.



대구읍성 4대문과 서문시장

조선의 수도 한양을 둘러싼 성에 동서남북으로 큰 출입문이 있었던 것처럼 대구읍성 동서남북에도 4개의 큰 문이 있었다. 진동문, 달서문, 영남제일관, 공북문이었다. 대구읍성이 건설된 후 읍성의 서문 근처에 큰 시장이 생겼다. 서문 앞에 있다 하여 이 시장을 서문시장이라고 불렀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서문시장은 조선을 대표하는 3대 시장 중 하나가 되었을 만큼 번창하였다. 서문시장은 1920년대에 지금의 위치(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로 이전하였다.



일본의 조선 침략과 무너진 대구읍성



“허물지 마라!”
감영 건물 철거에 저항했던
대구 사람들

대구읍성 철거 후 일본은 경상감영 안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철거하였다. 그중 하나가 경상감영 객사(손님들이 묵던 숙소)였던 달성관이었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달성관을 철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대구 사람들은 달성관 앞으로 몰려가 밤을 새워 가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부대를 동원해 농성하던 사람들을 해산시킨 후 달성관을 허물어 버렸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힘이 약해지자 일본과 서양 강대국이 조선 땅에 밀려들었다. 경상감영의 도시 대구에도 변화가 생겼다. 1893년 대구읍성 남문 부근에 의약품과 잡화를 파는 일본인 가게가 생겼다.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일어난 해인 1894년에 조선 땅에 들어온 일본군은 대구 달성(지금의 달성공원)에 부대를 주둔시켰다.

1895년 조선초기부터 대구의 행정 명칭이었던 대구도호부가 대구부로, 1896년엔 대구군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904년 경부철도 건설공사가 시작된 후, 대구에는 건설 관계자와 그들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상인 등 일본인들이 몰려들었다. 대구 거주 일본인들은 일본군을 등에 업고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일본인들은 대구읍성 북문 밖에 많이 살았는데, 경부철도가 정차하는 대구역이 그 지역에 들어서게 되었다.

대구의 상권을 장악한 일본인들은 그들의 거주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대구읍성 철거를 추진했다. 1906년 당시 대구군 군수였던 친일파 박중양은 조선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일본인 요구대로 성벽 철거를 시작하였고, 1907년 읍성 철거를 완료하였다.

성벽 철거 후 사방에 동성로, 남성로, 서성로, 북성로 도로가 만들어졌다. 이 무렵 경상감영 내의 여러 건물도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 일본이 세운 경찰서, 은행 등의 건물이 들어섰다. 대구의 경상감영 자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 거점으로 탈바꿈되고 만 것이다.



1888년 프랑스 탐험가인 샤를 바라(Charles Varat)는 조선을 여행한 후 『조선기행』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엔 그가 대구읍성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대구읍성의 웅장한 풍경을 짐작할 수 있다.

“말에 올라 대구 시내를 관람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높은 성벽을 구경시키려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둑근 길을 따라 쌓여진 그 성벽은 북경(중국 청나라 수도)의 성벽을 축소한 것과 똑같다.

북경에서처럼 그 성벽은 도시 전체를 감싸는 평행사변형이었다. 사방 성벽의 각 면에는 웅장한 성문이 서 있었다. 그 성문에 있는 정자 안에 들어가면 과거 역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림과 조각들이 있었다.

그곳에 올라서 나는 가을 햇빛 아래 찬란한 색채를 빛하며 전원 사이를 굽이치는 금호강의 낙조를 감상했다. 내 발 아래로 큰 도시의 길과 기념물과 관사들이 펼쳐져 있었다.

서민들이 사는 구역에는 초가지붕이 이마를 맞대고 있었으나, 양반들이 사는 도시의 중심에는 우아한 지붕의 집들이 서 있었다. 꼭대기와 가장자리가 교묘하게 굽어진 지붕의 기와들은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울려 절묘한 선의 조화를 이루었다. 우리는 같은 양식으로 된 절 두 채와 한문을 가르치는 큰 학교와 관청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조선기행』, 샤를 바라 외 지음, 성기수 옮김, 눈빛, 2006에서 인용

3

대구는 어떻게 대한민국 3대 도시로 성장했을까?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1945년 광복 후 대구가 어떻게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발전했는지 알아보자.

또 경제성장에 따라 달라진 대구의 모습과 현황도 살펴보자.



한국전쟁 중 대구역 앞의 풍경

1950년
대한민국 임시수도 대구



전쟁 중 한국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대구

1950년 대구로 피난 온 사람들 중에는 예술가들도 있었다. 1953년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상당수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들이 대구에서 예술 활동을 하였다. 황소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현재 대구 도심 동성로 입구에 있는 〈CGV 대구한일〉 자리엔 국장 겸 공연장이 있었는데, 이곳은 전쟁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립극장 역할을 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남한에 쳐들어온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한 데 이어 빠르게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왔다. 서울을 떠나 후퇴하던 우리 정부는 1950년 7월 16일부터 대구를 대한민국 임시수도로 정하였다. 그해 8월 17일까지 한 달간 대구는 대한민국의 임시수도였다.

8월 중순 북한군은 대구에서 가까운 왜관 지역까지 내려왔다. 대구는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밀리기만 하던 한국군과 UN군은 낙동강 일대의 방어선을 잘 지켜 전세를 역전시켰다. 그 덕분에 대구는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대구의 공업은 빠르게 발전할 기회를 잡았다. 전쟁으로 다른 지역 공장들은 많이 파괴되었지만 대구의 공장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까닭이다.

전통적으로 상업이 발전한 도시였던 대구에서 공업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1950년대를 지나며 대구는 전국 제1의 섬유산업도시가 되었고,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3대 도시가 되었다.

대구가 제3의 도시가 된 데는 행정중심도시, 상업과 공업의 별달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교육도시, 문화도시로도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1895년까지 대구의 정식 명칭은 대구도호부였다. 1895년부터 1910년까지 대구 지명은 여러 번 바뀌었다. 대구도호부 → 대구부(1895년) → 경상북도 대구군(1896년) → 대구부(1910년)로 바뀐 것이다.

대구가 '시'로 승격한 것은 것은 1949년 8월 15일이었다. 그러나 이때 대구는 경상북도에 속한 도시였다. 대구는 경상북도 제1의 도시였고, 경상북도 도청도 대구에 있었다. 1958년 동촌, 공산, 가창, 성서, 월배면이 대구시로 편입되어 대구의 면적은 넓어졌다.

1960~1970년대에 대구는 대도시로 빠르게 성장했다. 1969년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같은 해 동대구역이 생겼다. 1970년엔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대구의 교통이 더 편리해졌다.

대구시가 경상북도에서 분리가 된 것은 1981년이었다. 대구의 도시 규모가 커지자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도시 중 두 번째로 직할시로 승격된 것이다. 대구직할시의 시대인 1984년 대구의 인구는 200만 명을 돌파하였다.

1995년에 대구직할시는 대구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때 달성군 지역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었다. 농지와 산이 많은 달성군이 대구시 지역이 됨으로써 대구의 면적은 크게 늘어났다. 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 대구시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도시가 되었다.



대구의 가족이 된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대구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후부터 아주 오랫동안 대구의 중심은 현재의 대구시 중구 지역이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구는 중구에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되었다. 1980년 전까지 대구에는 5개의 구가 있었다.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였다. 인구와 면적이 늘어나면서 대구에는 새로운 구가 생겼다. 1980년에 수성구가 생겼고, 1988년 달서구가 새로 생겼다. 이어 1995년에는 달성군이, 2023년에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소속이 되었다.

우리 대구는~요

면적
1,497.76km²



인구
2,383,939명



남
1,172,892명



여
1,211,047명

2023년 대구광역시 및 군위군 홈페이지 통계/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참조

심벌마크

대구의 자연을 대표하는 팔공산과 낙동강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진취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활기애 가득찬 도시 이미지를 표현했다.



캐릭터

세계적 섬유패션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이미지를 비천상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름은 '패션이'이다.



시정 슬로건

파워풀 대구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 열정에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더해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의미이다.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POWERFUL DAEGU



대구에 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는지 다음 자료와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내륙의 도시는 주로 강이 있는 평야 지대나 분지 등 평탄한 곳에 있다. 이러한 지형은 물을 얻기 쉽기 때문에 농업이나 공업이 발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운을 통해 상업도 발달할 수 있다. 특히 분지 지역은 산과 강이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는 방어적 기능도 하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로 발달한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 큰 도로나 철도가 만나는 지점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쉽고, 물류 이동이 쉽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의 경우에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관광 자원도 풍부하다. 과거에는 농업과 군사 전략상의 중요성 때문에 도시의 형성에 지역이 큰 영향을 끼쳤지만, 현대에는 일자리와 시대의 흐름을 앞서갈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과 산업의 발달, 그리고 문화가 도시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도를 통해 대구의 지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지형이 대구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대구는 팔공산과 비슬산 같은 큰 산을 두고 낙동강과 금호강, 신천이 흐르는 분지입니다. 강 주변으로 넓고 평탄한 지역이 펼쳐져 농업과 공업이 발달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었지요. 자연재해도 별로 없는 데다, 높은 산과 강이 천혜의 방어막이 되어 도시도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었죠. 신문왕이 수도를 옮기려 했던 이유가 짐작되죠. 훗날 고려와 후백제가 벌인 팔공산 전투나 한국전쟁 때 낙동강·다부동 전투의 결과가 미친 영향을 떠올리면, 대구가 군사 요충지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구 주변의 교통망을 살펴보고 대구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근대화 초기 대구는 경부선과 중앙선에 연결된 대구선 철도가 지나는 도시로 상업은 물론 내륙 문화·교육 발달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경부·중앙·중부내륙(구 구마고속도로)·광주대구·대구포항 고속도로가 지나는 도시로, 우수한 도로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지형적 유리함은 천혜의 축복입니다. 오랜 도시 역사, 그 속에서 싹튼 시민들의 자긍심, 여기에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지형적 조건이 더해져 혁신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망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교실 밖 대구 역사체험

경상감영과 대구읍성 유적을 찾아서!

수업시간에 듣고 읽는 역사에서 잠시 벗어나, 교실 밖 현장을 찾아가보면
좀 더 또렷하게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1장에서 소개할 체험학습 장소는 경상감영과 대구읍성 유적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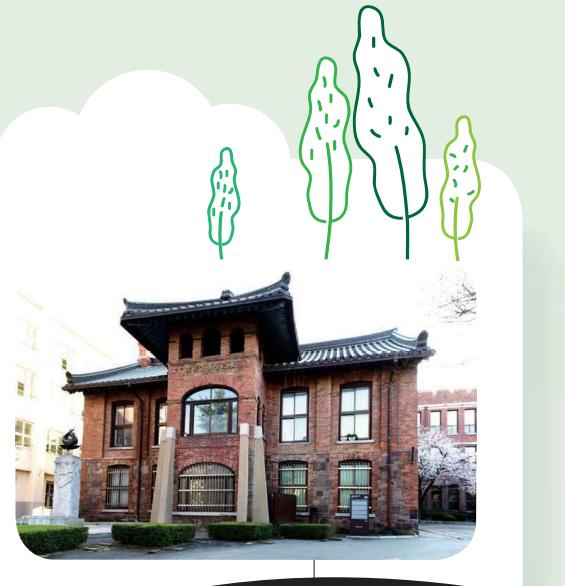
경상감영공원

대구 도심에 있는 경상감영공원에는 선화당(관찰사 근무 장소)과 징청각(관찰사 거처)이 있다. 선화당은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징청각은 제2호이다. 또 공원 안에는 관찰사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말에서 내려 선화당으로 들어가야 했던 시설인 하마비, 관찰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들이 남아 있다.

달성공원 관풍루

1601년 경상감영 설치 때 선화당의 남서쪽에 포정문을 세우고 그 위에 올린 누각이 관풍루이다. 대구읍성을 철거한 후 달성공원으로 옮겼다.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이다.





영남제일관

대구읍성은 동서남북으로 4개의 정문이 있었는데, 그중 남문을 영남제일관이라 불렀다. 일본이 1906년 허문 것을 1980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망우당공원 안에 다시 복원하였다.

대구읍성 조형물

대구시 중구 성내 1동에 설치되어 있다. 조형물에 있는 동판에는 읍성과 관련된 설명문, 지도 등이 새겨져 있어 대구읍성의 역사와 당시 대구 시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대구읍성 성돌이 남아있는 곳

1907년 대구읍성이 철거된 뒤 성돌(성을 이룬 돌) 중 일부는 당시 대구에 세워지던 서양식 건물의 기초석이나, 부잣집 정원을 장식하는 용도로 팔려나갔다. 그 성돌 중 일부는 현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안에 있는 선교사 주택 단지 안 스위츠 주택, 서문시장 옆에 있는 옛 계성학교 건물 중 하나인 아담스관 등에 남아 있다.

한눈에 쑥 들어오는 20~21세기 대구의 변화



일제강점기의 대구역



1930년대 서문시장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 개점(1967. 10. 7.)



경부고속도로 준공 및 대구진입로 개통(1970. 7. 7.)



대구시내에 처음 등장한 부영버스(1929. 7.)

1905 경부철도 대구역 개장

1923 서문시장, 현재의 위치인 대신동으로 이전

1929 대구부, 부영버스 운행 시작

1931 대구 최초의 공설운동장 개장

1936 칠성동, 침산동, 비산동 지역에 공업지구 지정
(이후 침산동 일대는 대구 공업의 중심지로 성장)

1937 대구비행장 준공

1939 대구 최초의 방송국 개국

1945 광복

1950 한국전쟁 발발로 대구를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로 지정
(7월 16일~8월 17일)

1956 대구에 전화국 설치

1961 대구~서울 간 여객기 취항

1966 대구 최초의 아파트 준공
(남구 대명동 공무원아파트)

1967 전국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 설립

1968 대구 최초의 10층 건물 등장
(대구 대명동 한국사회사업대학, 현 대구대학교 전신)

1970 대구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1977 대구~마산 간 구마고속도로 개통



팔공산, 도립공원 지정(1980. 5.)



대구의 랜드마크인 이월드의 83타워



국립대구박물관 개관(1994. 12. 7.)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2015. 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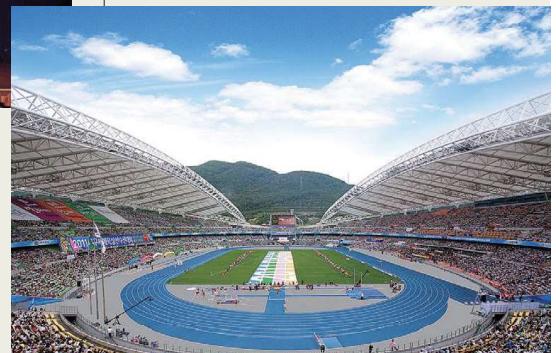
삼성라이온즈 출범식(1982. 2. 3.)



대구,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승격(1995. 1. 1.)



대구지하철 1호선
전 구간 개통(1998. 5. 2.)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2011. 8. 27~9. 4.)

- 1980** 팔공산, 도립공원 지정
- 1981** 대구시, 대구직할시로 승격
- 1982** 제1회 달구벌축제 개최.
대구·경북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삼성라이온즈
창단
- 1984** 대구 인구 200만 명 돌파

- 1992** 두류공원에 83타워 완공
- 1994**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 1995** 대구직할시에서
대구광역시로 승격
- 1996** 대구 인구 250만 명 돌파
- 1998** 대구도시철도 1호선 개통
- 1999**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조성

- 2005** 대구도시철도 2호선 개통
- 2011** 제13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개최
- 2015** 세계물포럼 개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
- 2023**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4

대구의 정다운 이웃, 경상북도의 역사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대구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경상북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아울러 경상북도의 자랑스러운 전통 및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경상북도 지명에
들어있는 두 도시 이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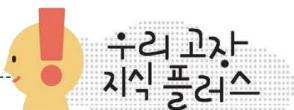
경상도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합쳐서 부르는 지명이다.

대구라는 지명이 처음 생겨난 신라 경덕왕 시절에 신라 땅에는 9주 5소경이 있었다. 오늘날 경상도 땅은 9주 중에서 상주, 양주, 강주의 3개 주에 걸쳐 있었다. 이때까지는 경상도라는 지명이 없었다.

995년 고려의 왕 성종은 전국을 10개의 도로 나누었다. 이때 경상도 지역은 영남도, 영동도, 산남도로 나뉘지게 되었다. 처음 ‘경상’이라는 지명이 생긴 것은 1106년으로, 위의 3개 도를 합하여 경상진주도라고 불렀다. 이후 지명이 몇 번 바뀌었다가 1314년부터 경상도라는 지명이 굳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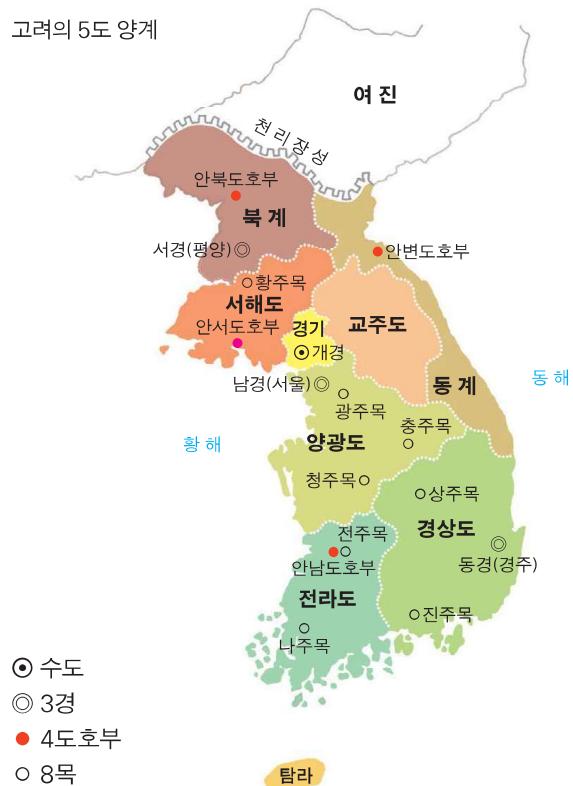
경상도는 지역의 대표적 큰 도시였던 경주와 상주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지명이었다. 이런 지명 만들기는 조선 8도의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전라도는 전주+나주를 합한 지명이었다. 이 외에 충청도(충주+청주), 강원도(강릉+원주), 황해도(황주+해주), 평안도(평양+안주), 함경도(함흥+경성)가 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명이다.

경상북도가 생긴 것은 1896년 조선 정부가 전국을 8개 도에서 13개의 도로 나눴을 때였다. 이때 경상도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나뉘지게 되었다.



고대에 있었던 경상북도의 나라들

한반도에는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전 크고 작은 나라들이 전국에 있었다. 이런 나라들을 성읍국가 또는 읍락국가라고 한다. 성읍국가는 경상북도에도 여럿 있었다. 사로국(경북 경주), 이서국(청도), 압록국(경산), 조문국(의성), 사벌국(상주) 등의 나라였다. 이들 나라 중 사로국이 발전하여 신라가 되었고, 나머지 나라들은 시간이 흘러 신라에 통합되었다.





안동 풍천면에 있는 경북도청 청사

경상북도 도청이 있는 곳!
여기는 안동입니다

2016년까지 대구시에 있던 경상북도 도청 건물은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인 안동시 풍천면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도청이 위치한 이 지역을 흔히 도청신도시라고 부른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도청신도시의 인구는 2만 5천 명을 넘어섰다.

경상북도 도청을 품은 안동 지역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다. 달구화현이 대구로 이 름이 바뀐 757년에 안동 지역 이름도 고타야군에서 고창군으로 바뀌었다.

안동이란 지명은 930년에 생겼다. 이 해에 고창에선 왕건의 고려군과 견훤의 후백제 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때 고창군의 지도자들은 왕건의 편에 서서 고려가 승리하는 데 공을 세웠다. 왕건은 고창군 사람들이 도와준 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지역 이름을 고창에서 안동으로 바꾸었다. 여기엔 ‘평안한 동쪽 땅’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고려·조선시대에 각 지방은 그 지방의 인구, 논과 밭의 면적 등을 기준으로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으로 등급이 나뉘졌다. 고려 말기인 1204년 안동은 대도호부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안동은 경상도의 중심지역으로서 읍·격을 유지하였고, 세조 때는 잠시 진(군대 거점 지역)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1895년 지방제도 개정 때 안동에는 관찰부가 설치되어 경상도 동북부 17개 군을 관할하였다. 이듬해인 1896년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안동관찰부는 안동군이 되어 경상북도에 속하게 되었다.

1931년 일부 면이 통폐합되면서 안동은 1읍 15개 면 218개 동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되었는데, 점차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1963년에 안동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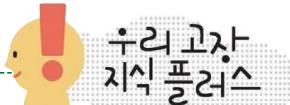
또 하나의
경상감영 도시 상주

대구에 경상감영이 설치된 것은 1601년! 그렇다면 이전에는 경상감영이 어디 있었을까? 조선시대에 최초로 경상감영이 있었던 도시는 경주였다. 경상감영은 태종 8년 (1408) 경주에서 상주로 옮겨졌다. 당시 상주가 교통과 군사 면에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상주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까지 경상감영이 있는 도시가 되었다. 이 역사를 기념하여 상주에는 <태평성대경상감영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또 상주 거리에선 해마다 관찰사 부임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린다.



왼쪽부터 안향, 정몽주, 최제우 초상화

왜 경상북도를 인재의 고장이라 하였을까?



의병 지도자,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경상북도

경상북도에선 조선시대 말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허위(경북 선산), 이강년(문경), 신돌석(영덕), 정환직(영천) 같은 의병 지도자가 활약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독립운동이 활발하였다. 특히 안동 지역에선 이상룡, 김동삼 등의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왔다. 이 역사를 기념해 현재 안동에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있다.

1751년 조선의 선비인 이중환은 조선 땅 곳곳을 답사한 후 지리책인 『택리지』를 썼다. 『택리지』 경상도 편에는 경상도의 역사와 여러 지방 지리 정보가 실려 있는데, 경상도를 소개하는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다.

“고려에서 조선까지 경상도에서 장군, 재상, 훌륭한 선비, 공을 세웠거나 절개를 지킨 사람, 불도 등에 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경상도를 인재의 곳간이라 한다.”

경상도가 배출한 인재의 역사는 삼국시대 말기부터 시작되었다. 신라 사람 최치원은 당나라 유학 시절에 이미 명성을 얻은 인재였다. 신라가 망하고 고려왕조가 들어선 후 많은 경주 출신 인재들이 고려 조정에서 활약했다. 고려 중엽 이후에는 유학자 안향, 역사서를 편찬한 김부식과 일연, 정치 지도자인 정몽주, 화약을 발명한 최무선 같은 역사인물을 배출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경상도에서 빼어난 유학자들이 많이 탄생하였다. 그중에서 특히 유명한 사람이 이황이었다. 이황을 배출한 안동 그리고 선산, 영주 같은 지방은 조선시대에 선비의 고장으로 유명하였다. 또 조선시대에 경상북도에서 태어나 과거에 합격한 후 벼슬에 오른 사람이 무척 많았다.

종교 지도자도 많이 배출했는데 그 대표적 인물로 조선시대 말기 만민평등사상을 주창한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는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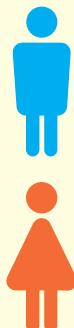
우리 경상북도는~요



울릉군

면적
18,419.2km²

인구
2,571,122명



남
1,297,467명

여
1,273,655명

경북도청 홈페이지 시군별 주민등록인구통계 2022.12.31. 기준

심벌마크

장쾌하게 뻗은 산(위),
세계로 진출하는 동해바다(가운데),
풍요로운 들판(아래)을 상징하고 있다.
가운데 여백은 미래의 발전과 번영을 향해
비상하는 왜가리(경상북도를 상징하는 새)의 모습과
경상북도의 젊줄인 낙동강을 표현하고 있다.



캐릭터

하회탈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신나리는
신나다(흥이 일어나 기분이 좋아지다)와
나리(지체 높은 사람을 뜻하는 말)의 합성어로서
경북의 신나고 힘찬 미래를 열어 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도정 슬로건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면 도민의 행복은
바람을 타고 온다는 의미이다.

새바람 행복 경북!